

30일째 촛불 성주군민 “다른 곳? 사드 철회뿐”

“지금 언론을 보면 (사드가) 성주 내 다른 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다. 우리가 작다고 해서 정부의 희생양이 됐는데, 우리 군 내 다른 지역을 희생양으로 삼는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성주라이온스클럽은 사드 배치 반대 운동을 투쟁위와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구호 한 번 다시 외치겠다.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사드 배치 결사반대”

9일 성주군청 광장에서 열린 28일차 사드 배치 철회 성주촛불문화제에 참석한 이교영(49) 성주라이온스클럽 회장의 말이다. 성주군민들은 사드 배치 지역이 발표된 7월 13일부터 매일 '한반도 사드 배치 철회' 촛불문화제를 열고 있다. 11일이면 벌써 30일째지만, 성주군민들은 지친 기색이 없다. 매일 1천~2천여 명이 모여 '사드 배치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고, 비가 내리면 우비를 입고 문화제를 진행했다. 주민들은 직접 통기타, 율동, 난타, 풍물, 노래가사바꿔 부르기도 등의 공연을 펼치고 있다. 또, 사드배치 철회성주투쟁위(위원장 김안수 백철



▲8월 3일 저녁 비가 내리는 날에도 촛불문화제에 참가한 성주군민들. 성주군민들은 사드 배치 지역 결정 발표일인 7월 13일부터 매일 저녁 군청 앞 광장에서 사드 배치 철회를 위한 촛불집회를 이어오고 있다. 정용태 기자 joydrive@newsmin.co.kr

현 정영길 이재복)의 보고와 자유발언, 언론브리핑 등의 시간을 가진다. '민주주의의 축제'라는 소문이 인터넷을 통해 퍼져나가자 타 지역 시민들도 '촛불체험' 관광 차 성주를 방문하고 있다. 가까운 대구부터 부산, 경

남, 서울 등지에서 시민들이 문화제를 방문했다. 야당 정치인들의 방문도 이어졌다. 의성에서 한우를 키우는 농민이기도 한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벌써 3번을 방문했고, 같은 당 김부겸, 정의당 김종대 의원도 촛

불문화제에 참석했다. 지난 5일에는 방송인 김제동(42) 씨가 지지 방문하기도 했다. 성주군민들은 사드 배치가 철회될때까지 촛불문화제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천용길 기자 droad@newsmin.co.kr

연월일	내용
2016년 7월 8일	한-미, 사드 배치 결정 공식 발표
13일	사드 배치 부지로 경북 성주 발표 성주군청 앞 촛불집회 시작
15일	황교안 국무총리, 성주 방문. 항의하는 주민 대화 요청 거부. 성주주민 차량 들이받고 떠남.
21일	군민 2,000여명 서울역 앞 시위 평화의 푸른 리본 제작 및 배포
26일	여당 대표단 성주 방문 새누리당 장례식 퍼포먼스
27일	유림단체 청와대에 사드 철회 상소
30일	분노한 농민, 참외밭 갈아엎어
8월 1일	성주투쟁위, 미국 대선 후보에 사드 철회 의견 공개 질의 국민연방 대표단, 정의당 방문
3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방문
4일	박 대통령 다른 지역 검토 발언
5일	투쟁위, "사드 배치 철회뿐" 성명 방송인 김제동 씨 지지 방문
10일	백악관 청원 서명 10만명 돌파
11일	사드 철회 30차 촛불집회 (예정)
15일	광복절 맞이 '사드철회 평화축구' 대구로 집회 예정. 815명 식발식, 인간띠 잇기 등

그래픽=천용길 기자

사드가 뭐예요? 쉽게 설명 좀 해주세요

사드는 준중거리(3000km) 이하 탄도미사일이 땅에 떨어지기 전(고도 40~150km)에 격추하는 방어 무기 체계입니다. 미사일로 미사일을 맞춰 폭파 시키지요. 목표 미사일은 X-밴드레이더가 찾아냅니다. 발사대, 사격통제소를 하나로 묶어 '사드(THAAD)'라고 부릅니다. 사드 포대는 레이더 1대, 발사대 6기, 미사일 48발, 통제소 1개로 만들어집니다. 1개 포대당 비용은 약 1~2조 원입니다.

중국, 러시아는 왜 화를 내나요?

한국에 사드포대가 들어오면 미국 외 지역에는 처음 배치되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 텍사스에 포대가 4개, 괌 1개가 있습니다. 일본 샤리키, 교가미사키, 카타르, 이스라엘, 터키에는 X-밴드레이더만 하나씩 있습니다. X-밴드레이더는 탐지거리가 2000km인 전진배치레이더, 1000km이내인 종말단계레이더가 있습니다. 국방부

는 한국에 들어올 레이더가 종말단계라서, 실제 탐지거리를 따지면 중국까지 감시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 국방성은 레이더를 종말단계에서 전진배치로 전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성주에서 2000km면 중국 중부도 포함됩니다.

말씀 많은 사드, 왜 도입하나요?

정부가 성주 배치를 결정한 사드는 한국군대 것이 아닙니다. 미군의 사드이며, 미군기지가 들어옵니다. 미국은 1990년부터 본토 방어(NMD)와 해외주둔미군·우방국 방어(TMD)로 나뉘었던 미사일 방어 체계를 2001년 하나(MD)로 통합합니다. 1998년 미국은 김대중 정부에 TMD참여를 요청했는데, 당시 정부는 '주변국 자극·효과 의문'이라며 불참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이후 다시 MD 편입 논란이 불거졌지요. 미국은 아시아에서 대외



▲사드=록히드마틴(사드 제작 군수업체)

무력으로 불황을 극복하려 합니다. 최대 무역적자국인 중국 견제도 덤으로 하겠지요. 사드는 선명하게 동북아를 중국+러시아+북한 대 미국+일본+한국으로 갈라놓는다는 분석입니다. 미사일 기지를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대한민국, 성주는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새우등 터지게 됐습니다. 박종업 기자 naholow@newsmin.co.kr

"박 대통령, 원안대로 밀어붙일 것 투쟁위, 한반도 사드 배치 철회다"

[인터뷰] 백철현 사드배치철회성주투쟁위 공동위원장



박 대통령이 '성주 내 다른 곳 배치 검토' 발언 후 성주투쟁위는 어떤 입장인지 백철현 위원장에게 물었다.

박 대통령 발언 이후 투쟁위는 어떤 생각인지? -변함없다. (한반도) 사드 배치 철회다. 박 대통령 말은 이랬다가 저랬다가 한다. 군민들은 믿음이 덜 가는 게 사실이다. 원안대로 밀어붙이겠다는 뜻으로 본다. 제3지역을 언급한 의도는 분열이다. 군민 마음을 흐트리고 있다. 절박한 군민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매달린다. 군민 스스로 공부하다 보니 성주가 아닌 대한민국 사드 배치 철회가 맞다고 생각

한다. 다른 시·도에 옮길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점부터 법적인 근거를 토대로 절차를 다 거치고 주민 설명과 설득도 해야 하는 거니까. 어딜 가도 다른 지역에서 받지 않을 거다. 성주 안에서 옮기는 것도 마찬가지다.

제3지역 이전에 대한 의견도 수렴할 생각인가?

-아직 답할 수 없다. 우리는 예전부터 국방부나 정부에게 대화의 창을 열어줬다. 9일 회의에서 지금이라도 국방부와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것은 해도 좋다고 의견했다. 자기 입장만 설명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의견을 듣는 방식이라면 만날 수 있다. 국방부에서도 최근 간담회 요청이 왔으니 조만간 국방부 장관을 만날 예정이다.

박종업 기자 naholow@newsmin.co.kr

정부의 일방적인 사드배치 결정에 5만 성주군민은 분노한다!

정부는 국가안보라는 이유로 7월 13일 일방적으로 성주지역에 사드배치 확정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5만여 성주군민들은 정부의 일방적, 독선적 행태에 분노하며 군민의 생존권과 지역의 미래를 위해 성주지역 사드배치가 철회될 때까지 강력 투쟁함을 천명합니다.

사드배치철회성주투쟁위원회

후원: 뉴스민

사드철회 평화축구 결의대회 2016년 8월 15일(월) 15:00~성주 성밖숲 일원

사드 논란 불필요하지 않은 5가지 이유



이형철 경북대 물리학 교수

Q1. 사드 레이더의 전자기파는 정말 강력한가요?

-사드 레이더는 1,000 km 이상의 먼 거리까지 쏘아준 전자기파가 반사되어 되돌아오는 신호로 물체를 감지하는 장비이다. 일반적으로 최대 탐지거리의 제곱에 비례하는 전자파를 발생한다. 사드 레이더는 탐지거리가 길기 때문에 강력한 전자기파를 쏘아주는 것은 당연하다.

Q2. 정부의 주장대로 사드기지에서 100 m 이상 떨어진 장소는 안전지역인가?

-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레이더 관련 교범에 의하면 레이더 전방 100 m ~ 3,600 m 떨어진 장소를 비통제인원 접근금지 구역(Uncontrolled Personnel Keep Out Zone)로 정하고 있다. 어찌된 일인지 국방부는 이 접근금지 구역을 안전구역이라고 한다. 국방부의 난독 증인지 아니면 국민의 안전은 필요

없다는 시각 때문인지 헛갈린다. 사드배치를 추진하는 정부의 시각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Q3. 레이더 기준 상방 5도 이상으로 전자기파가 지향하므로,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 위치한 성주읍은 안전하다는데 사실인가요?

-장거리 탐지용 레이더는 당연히 직진성이 높은 전자기파를 쏘아주어야 한다. 하지만 모든 파동은 퍼져나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서치라이트'나 '스포트라이트'는 한 곳을 집중해서 비추어주지만, 당연히 그 주변도 밝아진다. 따라서 레이더보다 낮은 곳에 위치한 지역에도 전자기파의 영향은 반드시 생긴다. 하지만 주민에게 어느 정도의 피해를 유발할지는 정확히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레이더 사양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다. 구체적인 데이터 없이는 논쟁의 대답을 찾을 수 없다. 성주 군민들이 불안해한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다.

Q4. 사드 레이더가 주민들에게 유해하다는 것을 어떻게 입

증할 수 있나요?

-사드의 유해성을 성주 군민들이 입증할 수도 없고 입증할 필요도 없다. 성주 군민이 자진해서 유치한 군사시설이 아니지 않는가? 사드를 배치하려면, 소유자인 미군이나 아니면 부지를 제공하는 정부가 사드의 무해성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성주 군민들은 하루 이틀만 성주에 머물지 않고 수십 년 이상 살아가게 된다. 정부는 수십 년에 걸쳐 전자기파에 노출되더라도 안전하다는 장기간 안전성도 입증해야 한다.

Q5. 성주 군민의 사드 배치 반대는 님비현상 아닌가요?

-원전 유치 반대나 사드 배치 반대는 과학적으로만 해석할 수 없다. 주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분명히 실존하는 사회적 현상이다. 또한 전자기파의 인체 유해성 논란도 해결되지 않은 이슈이다. 사회적 이슈는 사회적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나아가 군사시설 배치 반대는 님비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난 개인적으로 복지시설인 요양원의 유치에는 찬성하지만 전쟁준비용 군사시설 배치는 강력 반대한다.



성주농민의 울분, 참외밭 갈아엎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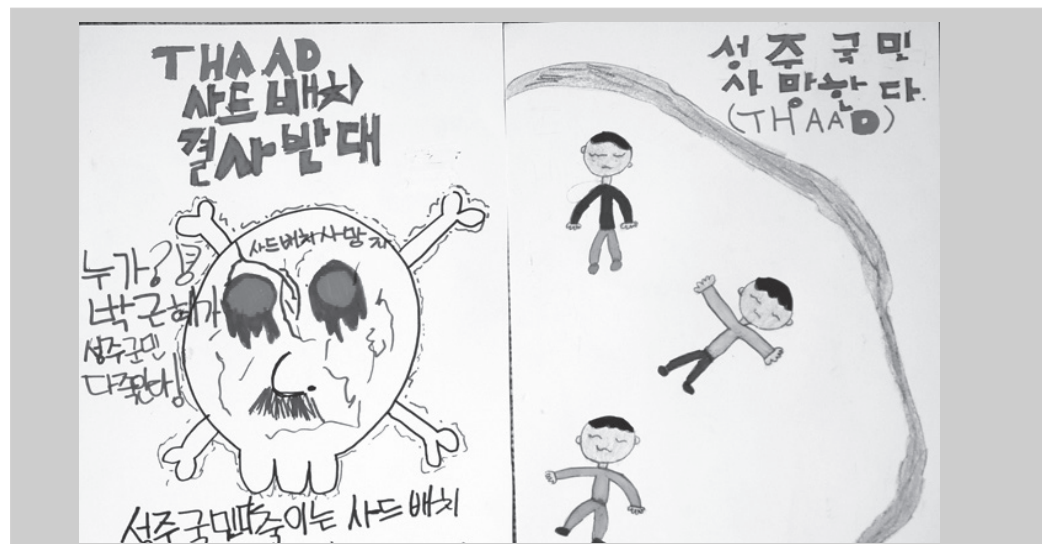
경북 성주 농민들이 사드배치 철회를 요구하며 '생명줄'인 참외밭을 갈아엎었다. 성주군민 60% 이상이 참외 농사를 짓는 만큼, 절박함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7월 30일 오전 10시 (사)한국농업경영인회 성주군연합회 회원 100여 명은 사드 배치 지역으로 결정된 성산포대가 보이는 참외밭(성주읍 성산리 686-3)에서 참외밭 갈아엎기 집회를 열었다. 참외를 재배하는 비닐하우스 1동은 땅값과 시설비까지 포함하면 약 3천만 원에 이른다.

'사드배치 철회'가 적힌 머리띠와 어깨띠를 둘러맨 농민들은 트랙터 10여 대로 참외밭을 갈아엎었다.

이임영 한국농업경영인회 성주군연합회장은 "지금 성주 농민들은 사드 때문에 시들어 말라 죽거나 사드 배치에 항거하다가 죽거나, '이래 죽어나 저래 죽어나' 같다는 심정"이라며 "죽음도 불사한다 사드배치 결사반대'는 결코 헛구호가 아니다"고 말했다.

천용길 기자 droad@newsin.co.kr



사드 배치를 바라보는 성주 청소년의 눈

저는 성주에 사는 초등학생입니다. 저희 성주에 사드가 설치된다 하여글을 씁니다. 왜관, 평택 등 사드배치 후보지에도 없던 우리 성주가 어느날 갑자기 사드 배치 확정지역으로 뽑힌 것이 어이가 없습니다. 북한 미사일을 감지하기 위해 나오는 많은 전자파가 성주를 망칠 것입니다. 참외의 도시, 농사를 짓는 지역에 사드를 설치함으로써 참외 판매율은 매우 떨어지고, 전자파로 성주농민에게 암 또는 각종 질병, 기형을 발생한다고 합니다. 광이나 일본에는 사람이 떨어진 곳이나 바다를 향해 사드를 배치했지만, 구토나 두통을 느낀다고 합니다. 또, 사드는 중국과의 교류를 중단시키는 지름길입니다. 중국과 외교활동이 많던 우

리나라는 중국과 교류를 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중국을 통해 많은 이익을 보는 우리나라. 중국과 더 친하게 지내야 하는데 사드를 통해 더 멀어질 수 있는 사이를 다시 되살려야 합니다. 사드배치는 남북, 아시아 평화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전쟁은 성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의 문제입니다. 어제 북한이 동해에 미사일을 발사한 것처럼 일촉즉발의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시아의 평화를 깨는 사드배치는 성주국민만의 시위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저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퍼져가고, 전 국민들이 사드배치 반대운동을 도와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도와주세요!

“레이더 주변 미군, 불임.정자운동성 감소.자연 유산 증가”



노태맹 성주효병원장

사드 엑스밴드 레이더의 전자파 위험은 어느 정도일까요? 정부가 성주를 사드 배치 지역으로 발표하면서, 군민들은 레이더 전자파가 건강을 위협할 것이라고 불안해하고 있다. 반면, 국방부는 사드 레이더에서 방출되는 전자파는 안전하고 농작물에도 피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국방부는 패트리엇 미사일 기지에서 사용하는 그린파인 레이더의 전자파 전력 밀도를 공개하면서 사드 레이더에 대한 '위험성'을 잠재우려 했다. 그렇다면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유해 주장은 정부 말대로 '과담'일까?

정부는 레이더 기지에 종사하는 군인들에게서도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에 대한 몇 가지 연구 결과를 찾아봤다.

레이더 주변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서 △자연 유산 △적혈구 백

혈구 변동과 림프구 변성 △염색체 이상 △고환암 증가 등이 있었다는 연구 결과이다. (R. Goldsmith. Epidemiologic Evidence Relevant to Radar (Microwave) Effects. Environ Health Perspect 105.1997).

이 연구를 포함한 여러 논문을 분석 정리한 한 리뷰저널은 레이더를 탑재한 미 해군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도 실고 있다. 이 연구에서 △불임 △정자 운동성 감소 △정자 이형성증 △자연 유산의 증가 등이 나타났다. 또, 레이더 기지 종사자, 비행기 조종사 등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저강도의 전자파에도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고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박동성의 펄스 초단파는 △DNA 기전에 변이를 일으킴으로써 세포 독성을 나타낸다고 하고 장기간 펄스 초단파에 수개월 노출됨으로써 △뇌암을 일으키기도 한다고 했다. 이 효과는 일반적인 기준 내에서도 나타난다. 심지어 비교적 짧은 기간의 휴대폰 사용도 뇌암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전자파가 위해 요소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아직 어느 정도면 암이나 다른 질병을 일으키는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아직 없다. 그러나 정부가 '아니라는데도 위험하다니, 그럼 레

이더 전자파가 어떻게, 얼마나 위험한가를 증명해보라'며 성주군민에게 요구할 수는 없다. 위험성 증명은 사드 배치를 결정한 정부가 해야 한다. 그린파인 레이더 주변 측정은 무해성 증명이 아닌 해프닝에 가깝다. 설령 그 증명이 맞다고 하더라도, 저강도 전자파에 장기간 노출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가 없다. 과학적 설득은 레이더 앞에서 있겠다는 신념이나 의지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자료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사드 레이더의 정확한 재원, 최대 출력, 작동 시간, 전력 밀도 등 알고 있는 것이 거의 없다. 정부는 400m 높이에서 수평면으로 5도 각도 이상이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 수평면은 사람이 살지 않는 해수면이나 지평면을 가상하고 있다. 이 때문에 수평면 아래에 사는 성주군 사람들에게 전자파가 어떻게 얼마나 분산될 가능성이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국민은 국가와 정부를 통해 안전을 누리는 사람이지만 안전을 증명하는 사람이 아니다. 정부는 납득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를 제출하고 그것이 안 된다면 사드 배치 계획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박종업 기자 nahollow@newsin.co.kr



▲8월 5일 성주군청을 방문한 김제동 씨에게 한 군민이 머리띠를 매어주고 있다

성주 온 김제동, “사드 배치 대안은 외교”

5일 방송인 김제동(42) 씨는 성주를 방문해 사드 배치 철회 투쟁에 나선 군민들을 만나 환영받았다. 푸린 리본을 달고, 성주군청 인근에서 주민들과 대화를 나눈 김제동 씨는 “사드 배치에 대한 국민적 논의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다. 대통령이 대안 제시를 하라고 했는데 집권 5년 동안 (국민의) 권한을 위임해 (대안을) 생각하라고 월급을 주는 것”이라며 “제시하라면 할 수 있다. 외교다. 총칼 드

는 안보 시대는 끝났다. 한반도에 머리 맞댄 중국과 러시아를 적으로 돌리는 사드 배치가 국익에 어떤 도움이 되나. 외교를 통해 키를 한국이 쥐 수도 있다. 외교, 안보, 경제 대안 제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안전보장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법률로 제한할 수 있지만, 그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며 “자유와 권리가 모두 보장

된 상태에서 국가 안보를 이야기하는 것이 헌법 정신이다. 외부세력 운운하는 것 역시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반헌법적인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권력’이라는 단어는 딱 한 번 나온다. 나머지는 다 ‘권한’이다. 권력은 오로지 국민에게서 나온다. 대통령에게는 권한만 있다”고 강조했다.

해외여행 경험 없는 일본 사드마을 주민이 여권 만든 이유



일본 사드 레이더 마을, 교탄고시 우카와 지구 방문기
“이거 말이죠? 저도 오늘 했습니다” 백악관 청원문 든 주민도

“이거 말이죠? 저도 오늘 했습니다” 오구라 신 씨가 A4 종이를 들어 보이며 말했다. 지난달부터 진행하고 있는 한국 사드배치 철회 백악관 청원이 인쇄된 용지였다. 오구라 씨는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다시 들어 줄 수 있겠느냐는 부탁에 수줍게 청원문을 들어 보였다. 지난 7일 방문한 일본 교탄고시 우카와(宇川)지구는 한적한 시골 마을이었다. 오구라 씨는 우카와 주민이다. 지난 4월부터 미군기지 건설을 우려하는 우카와(宇川) 유지모임(우려모임)과 함께 활동하고 있다. 우려모임은 지난 2013년 우카와 지구에 엑스밴드 레이더 기지 건설이 결정된 이후 만들어진 반대 모임이다. 미츠노 미츠루(67), 나카이 토모아키(59) 씨 등 10여 명이 함께 만들었다. 엑스밴드 레이더는 미국의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핵심이다. 레이더 기지는 이들의 노

력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가동을 시작했다. 이날은 미군 엑스밴드 레이더 기지 반대 교토연락회(교토연락회)가 매달 두 번 진행하는 레이더 기지 현장 방문 활동 날이었다. <뉴스민>은 교토연락회의 도움을 얻어 우카와 지구를 방문했다. 이케다 타카네 교토연락회 사무국장(44)은 고속도로 위에서 “휴가철이라 예정보다 더 걸릴 것 같아요”라고 했다. 삼삼오오 가족이 타거나, 연인이 탄 차량이 같은 방향으로 가다 서다 했다. 수많은 차량이 향하는 곳에는 일본의 유명한 국립공원, 산인해안(山陰海岸)이 있다. 우리나라 동해와 마주한 산인해안은 일본에서도 손꼽히는 풍광을 자랑한다. 엑스밴드 레이더 기지도 산인해안 국립공원 안 깊숙한 곳에 위치했다. 명성에 걸맞게 레이더 기지로 향하는 해안가 곳

곳에서는 캠핑을 즐기는 관광객이 보였다. 심지어 유람선도 오간다고 이케다 사무국장은 설명했다. 놀라움을 표시하자 이케다 국장은 “사실 이곳 사람들 말고 다른 일본인들은 레이더 기지에 크게 관심이 없어요”라고 안타까워했다. 국립공원 안 한적한 마을. 주민 1,500여 명이 거주하고 약 35%는 65세 이상 노년층이라는 곳. 교토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기차와 버스를 번갈아 타며 4시간은 족히 가야 하는 외딴곳. 그런 곳에 엑스밴드 레이더 기지가 있었다. 일본인들이 잘 모른다고 해도 이상할 것이 없긴 했다. 한국도 만약 레이더 전방 1.5km 내에 주민 1만4천 명이 사는 성주읍이 없었다면, 이만큼 이슈가 됐을지는 미지수다. ‘청종산 구품사(淸涼山 九品寺)’라고 적힌 입석(立石)이 보였다. 입석을 왼쪽에 두고 좌회전하자 넓은 공터가 나왔다. 공터 오른쪽에 엑스밴드 레

이더 기지가 자리했다. 나카이 토모아키 우려모임 사무국장이 다가왔다. 나카이 국장과 구품사 경내로 들어갔다. 철조망과 위에 덧붙은 경고문이 절과 레이더 기지를 구분했다. 기지 안 경비들은 우리를 크게 경계하지 않았다. 검정 유니폼을 입은 경비들은 철조망 너머를 가끔씩 보며 동료와 수다 떨기에 바빴다. 경비들은 정규 미군이 아니라 경비업체 소속 ‘군속’이다. 군속 70명은 기지에서 30여 분 떨어진 숙소에서 숙식한다. 이케다 국장은 “정규 미군은 20명 정도예요. 전체 160명 정도가 근무하는데, 나머지는 모두 군속이거나 레이더 기술자예요. 일본인 근무자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이 안 되는 거죠”라고 설명했다. 교토연락회나 우려모임은 레이더 기지 건설 후 가장 큰 걱정거리로 치안을 꼽았다. 레이더 발전기 소음 문제는 6개 발전기마다 머플러(소음기)를 2개씩 부착하면서 어느 정도 해소

됐다. 미츠노 우려모임 대표는 “그래도 여전히 바람 방향에 따라 소음이 들린다”고 지적했다. 일본 방위성은 소음 문제 해소를 위해 발전기 대신 상용 전기를 끌어다 쓸 준비를 하고 있다. 전자파 문제도 지금 당장 체감할 수 없었지만, 미군속으로 인한 치안 문제는 당장 피해가 드러나고 있다. 이케다 국장은 기지 설치 이후 최근 1년 동안 이른바 ‘Y넘버’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24건 발생했다고 말했다. Y넘버는 주일미군이 사용하는 차량 번호 앞자리다. 24건 중 인명 사고가 발생한 사고는 2건에 그쳤다고 하지만, 교토연락회나 우려모임은 언제 큰 사고가 날지 모른다고 우려한다. 더구나 지난 5월 오키나와에서 미군속이 20대 일본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이 일로 미국과 일본은 미일간 주둔군 지위협정(SOFA)을 개정하기도 했다. 이케다 국장은 “그런 일이 우카와에서도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걱정했다. 매일 열리는 성주 촌불집회 사진을 보여주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마츠다 미츠오 씨(78)는 “매일 저녁 1,000여 명이 모일 수 있는 동력이 무엇이나”고 물었다. 미츠노 대표는 “언론을 통해 소식을 알게 됐다고 들었다. 우리도 똑같은 경험을 했다. 청천벽력 같았다. 교탄고시 인구도 5만 정도지만, 우리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싸움을 성주가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케다 국장은 “우려모임 나카이 국장은 아직 한 번도 해외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 성주 싸움을 보고 여권을 만들었답니다. 언제든, 성주에 도움을 주러 갈 일이 있으면 언제든 불러달라고 합니다”라고 전했다. 일본/이상원 기자

67년 방공포대가 성산 빼앗고, 2016년 사드가 마을 빼앗나

사드 예정지 성산리 주민들 이야기
“삶의 터전 강그리 없어질라”
“대통령이 직접 와서 보시라”

7월 27일 1년 중 더위가 가장 심하다는 점심때, 성산3리 주민들은 마을회관에 모여 닭 19마리를 고아 나눴다. 삼계탕 한 그릇씩 비우고 회관을 나선 남성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사드 배치 때문에 취재 다니고 있어요”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입을 열기 시작했다. “어진 백성이 말한다 고 먹어나 주겠어?”, “내가 카는게 그거 아니냐, 성주 4만5천 인구는 다 죽어도 상관없다, 이기라”, “박근혜 선거 운동 엄청시리 했거든. 지금은 뭐라 하는지 아냐. 아이고 말도 못한다” 자포자기부터, 믿었던 대통령을 향한 성토까지. 쉬지 않고 이어졌다. 성산3리는 국방부가 사드 확정 발표한 성주 성산포대 바로 아랫마을이다. 성산을 끼고 있는 성산리 중 3리가 가장 가깝다. 2015년 말 기준, 성산3리에는 117명이 산다. 마을이장 이양권(64) 씨와 주민들에 따르면 대부분이 이곳에서 5~60년 동안 터 잡고 살았다. 어릴적 성산은 추운 겨울을 버티게 해준 버팀목이었다. 이장 이씨는 “떨감 구할려고 자주 올라갔지요. 암

만개도 (성산이) 우리한테 도움을 많이 줬지요”라고 말했다. 주민들은 성산에 기대며 살았지만, 1967년 갑작스레 성산을 빼앗긴다. 국가는 이곳에 방공포대를 설치했고, 성산은 군인들 차지가 됐다. 군데군데 지뢰를 심고, 철조망을 둘러쳤다. 철조망 너머 울창하게 자란 나무가 탐났지만, 접근하지 못했다. 지뢰는 허술하게 심겼다. 비가 많이 내린 후면 지뢰 사고가 발생했다. 이장 이 씨도 중학생 시절, 막내 동생뻘 되는 마을 동무가 지뢰 사고로 발목을 잃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 씨는 “군인이 막아 놓으니까, 거기가 나무가 많거든. 사람이 많이 가는 덴 적고, 안 가는 덴 많잖아요. 가져가고 싶은 욕심이 생기거든. 사고 난 곳은 철조망 안은 아니고, 그 밑이었는데, 유실됐거나 이래 되가지고 일반인은 어느 게 지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근방에 가면 불안한 거지. 자기도 모르게 밟으면 발목이 절단 날 수 있으니까”라고 전했다. 그렇지만 성산을 떠나지 않았다. 산 아래서 밭을 일구고 참외를 심어 생

활을 이어왔다. 장성한 자식이 마을을 떠나도 마을에 남았다. 이들이 마을을 떠나지 않은 덕분인지, 다시 사람들이 마을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40대 이영주(가명, 여) 씨는 두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고 싶어 7년 전 성주로 귀농했고, 2년 6개월 전 성산3리로 들어왔다. 성산 바로 아래 집을 지었다. 남편은 그동안 돈이 생길 때마다 직접 집을 손봤다. 뜰 안에 놓인 작은 돌 하나까지 남편이 직접 채웠다. 올봄에야 집은 온전한 모습을 갖췄다. 그런데 7월, 사드가 집 바로 뒷산에 배치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 씨는 “진짜 저는 맨날 여기(성산) 쳐다보면서 울죠. 아이들 때문에 들어왔고, 건강하게 살려고 들어왔는데, 군부대가 있는지도 모르고 들어왔어요. 대개 가까워요. 아침엔 군인들 기상나팔 소리도 들리고”라고 말하며 눈물을 보였다. 10살 딸아이는 벌써 학교에서 나오는 흥흥한 소식을 전해왔다. “딸래미 학교에서 벌써 전화 간다는 이야길 들어요. 형편 되는 사람은 전화 간다고. 아마 학교도 없어지는 상황이 될 거예요” 성산3리 마을회관에서 만난 이들도 불안감은 마찬가지였다. 수십 년을 성산에서 살았다는 수동택은 “여기 사람은 너 안 죽을 나 죽기라. 인제 저



녁 먹고 읍에 데모하러 갈라고 한다. 죽기 아니면 살기로 막아야제”라고 말했다. 수동택은 기사를 끌고 마을 청년들이 있는 곳까지 안내했다. 50대 남녀 7명이 뉴스를 보며 소주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한 남성은 “사드 때문에 소주 먹고 안 있는교. 참외는 뒷전이 카이, 2세 문제지. 농사야 안 지으면 그만이지”라고 핏대를 세웠다. 또 다른 남성은 “군민을 너무 무시한다는 거지. 무식해서 모르는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배치된다고 생각 안 해요. 미사일 하나 날아오면 전면전이잖아. 전쟁 나면 사드가 뭐가 필요하노. 나는 빨갱이도 아니고, 여태 박근혜를 지지했는데, 지금은 ‘가스나’라고 한다카이”라며 박 대통령을 향한 비난도 서슴지 않았다. 절대적인 지지를 보냈던 대통령을 향한 성토는 성산리 어딜 가든 들을 수 있

는 반응이다. 대통령을 향한 분노는 안보를 이유로 동네 뒷산에 철조망을 두르고, 이번엔 마을에서조차 쫓아내려 한다는 두려움에서 비롯한 듯 했다. “성산을 다시 잃는다는 느낌이 아니라, 우리 삶의 터전이 강그리 없어질 수 있으니까. 여기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주변 사람들은 그게 더 심하다고 봐야 되고, 낮이 나갔다고 봐야지”라는 성산3리 이장 이 씨의 이야기다. 3리 마을회관에서 만난 여성들은 하나같이 “대통령이 직접 와 보시라고 해야 해요. 직접 보면 다를 거라니까”라고 말했다. 성산 바로 아래서 살아가는 자신들을 직접 만나보면, 대통령이 결정을 바꿀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이 엮여있다. 이상원 기자 solee412@newsmin.co.kr

사드 철회 백악관 청원 10만 넘었다

미국백악관으로부터 2달 내 공식 논평 받을 수 있어



▲사드 철회 백악관 청원 운동에 참여하는 성주군민들. 사진=사드철회성주투쟁위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을 철회하라는 백악관 청원 서명이 공식 답변을 받을 수 있는 10만 명을 넘었다.

10일 오전, 미국 백악관 청원 웹사이트 '위 더 피플(We the People)'에 올라온 '한국 사드 배치 결정 철회' 청원 서명이 목표치인 10만명을 넘었다. 청원 후 한달 내(미국 기준 8월 14일까지)에 10만 명이 서명하면 백악관으로부터 2달(60일) 내에 공식 논평을 얻을 수 있다.

청원 내용은 "미국과 한국 정부는 한국 국민의 광범위한 반대와 배치 지역(성주)민의 강한 반발과는 다르게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 조치는 이미 대량 살상 무기로 무장한 북한, 중국, 러시아의 군비경쟁을 높이고 도발해 이 지역의 긴장을 확대시킬 것"이라며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한발 뒤로 물러나 한국과 주변국에 지속가능한 평화 체제를 제공할 것이라는 합의를 추구함으로써 긴장을 낮춰야 한다"이다.

성주군민들은 그동안 성주군청 앞 청원 서명 부스를 만들고, 각 읍면사무소, 경로당 교육 등으로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청원을 도왔다. 또, 대구치맥페스티벌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장에서도 적극적으로 서명을 받았다.

이수인 사드철회성주투쟁위 기획팀장은 "성주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외부세력 프레임으로 지지세력을 막았지만, 우리는 밖으로 나가 연대를 요청했다. 이제 한반도 사드 배치 철회는 전국적 운동으로 번졌다"고 말했다.

투쟁위는 청원 서명 마감일인 14일까지 군청 앞 부스, 마을별 서명 운동, 타 지역 사드 철회 촛불문화제 등에 서명을 독려하는 활동을 계속할 예정이다. 또, 앞으로 국회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100만 서명 운동도 펼칠 예정이다.

김규현 기자 gyuhyun23@newsmin.co.kr

종교계, 사드 철회 한 목소리

종교계도 한 목소리로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기독교·불교·천주교가 성주에서 기도회 등 집회를 열고, 원불교도 사드 한반도 배치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7월 23일 오전 11시 성주·가천·선남·초전 성당은 합동으로 '한반도 사드배치 반대를 위한 생명평화 미사'를 열었다. 천주교는 4개 본당이 매주 토요일 평화 미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어 28일 오후 2시 대한예수교장로회 대구동남노회 성주시찰회도 기도회를 열고, "어디든지 사드가 배치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루속히 평화 통일이 돼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해 주시라"고 기도했다.

8월 6일 성주불교지도자총연합회가 '한반도에 사드 없는 평화 성취 기원' 법회를 열었다. 이들은 "부처님의 자비와 평화정신을 본받아 평화를 멀게 하는 사드 배치는 반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7월 14일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와 원불교 중앙청년회는 "한반도 어느 곳에도 사드 배치는 안 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김규현 기자 gyuhyun23@newsmin.co.kr

재구성주군향우회 500명, 사드 배치 철회

고향에 온 대구시민 5백여 명이 성주군민들과 함께 '사드 배치 철회' 촛불을 들었다.

재구성주군향우회(회장 김호윤) 회원 5백여 명은 10개 읍, 면 향우회마다 버스를 빌려 타고 8월 7일 저녁 7시께 성주군 성밖숲에 모였다. 이들은 '사드결사반대' 머리띠와 펼침막을 들고 성주시장을 거쳐 성주군청까지 약 1.4km 거리를 30분 동안 '사드 배치 결사반대'를 외쳤다. 행진을 마친 이들은 성주군청 광장에서 열리는 26차 '한반도 사드 배치 철회 촛불문화제'에 참석했다.

성주군민들은 출향인들을 반갑게

천용길 기자 draadb@newsmin.co.kr



군민들 자발적으로 투쟁기금 3억5천여만 원 모아

사드배치철회성주투쟁위는 사드 배치 반대 투쟁에 나선지 한 달 동안 약 3억5천500여만 원의 투쟁기금을 모았다고 밝혔다. 재구성주군향우회 1천5백만 원, 성주여중고동창회 2천6백여만 원, 성주성당 500만 원을 비롯

해 호국단체, 여성단체, 장애인단체, 종교계, 기업인, 일반 주민까지 기금을 냈다. 성주투쟁위는 "따로 홍보하지 않았는데 군민들 자발적 기금이 끊이지 않고 있다. 촛불집회 때 빵, 간식 등을 지원하겠다는 예약이 벌써

15일치 잡혀있다"며 "투쟁 기금은 대부분 홍보물, 파란 리본 재료비, 집회 음향 비용 등으로 쓰고 있다"고 말했다. 기금은 352-1157-6948-23, 농협, 배복수(투쟁위 총무재정분과단장)로 보내면 된다. 김규현 기자



▲서울역 앞 광장에서 집회를 연 성주군민들. 김항곤(사진 아래쪽 가운데) 군수는 이날 식발했다. 사진=위커스 김용욱 기자

성주군민 2천명 서울역에서 "사드 철회"

사드 배치 대정부 질의가 시작된 날, 성주군민들은 국회를 방문해 "사드 철회"를 요구했다. 내심 기대했던 새누리당 이완영 국회의원(고령군, 성주군, 칠곡군)은 사드 철회를 입 밖으로 꺼내지도 않았다. 화가 난 군민들은 국회를 뛰쳐나왔고, 이틀 뒤 2천여 명의 군민들이 서울역에 모였다.

7월 19일 오전 5시 30분, 40여 명의 군민들은 사드 배치 대정부 질의 국회 방청을 위해 서울행 관광버스에 올랐다. 최소한 사드 배치를 재검토하겠다는 말을 들을 수 있을 줄 알았지만, 실망만 안고 성주로 내려갔다.

국방부는 북한의 핵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완영 의원은 성주군 성산포대보다 인구가 적은 곳을 찾아줄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군민들은 그동안 참았던 답답함을 터뜨리며 국회를 뛰쳐나갔다. 뒤이어 따라 나온 이완영 의원은 군민들에게 혼쐫이 났다. 이충환 씨(55, 선남면)는 "우리한테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대통령을 설득하세요. 새누리당에서 사드 안 된다는 의문 있습니까. 성주가 아니라 한반도에 사드가 안 된다고요"라고 따졌다. 21일 오후 2시, 2천여 명의 성주군

민들은 서울역 앞에 모여 "한반도 사드 철회"를 외쳤다. 이날 군민들은 처음으로 평화를 상징하는 푸른 리본을 달았다. 김항곤 성주군수와 배재만 성주군의회 의장은 식발로 결의를 다졌다. 김항곤 군수는 식발에 앞서 "성주읍에는 우리 군민의 절반 이상인 2만5천 명이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군의 심장이다. 성산포대는 자고 일어날 때도 보이고, 안뜰에서도 보이고, 뒤뜰에서도 보인다. 그 코앞에 사드가 위치한다면 이것이 어떻게 국민 생존과 안전을 지킬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서울/김규현 기자

광복절 사드철회 평화축구 집회 연다

사드배치철회성주투쟁위는 오는 15일 오후 3시 성주군 성주읍 경산리 성밖숲에서 '사드철회 평화축구 결의대회'를 연다. 815명 식발, 성산포대부터 성밖숲까지 약 2km 2천여 명 인간띠 잇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성주군민들의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식발식 후 '사드철회 평화축구 결의 선언문'을 낭독하고, 머리카락 붓글씨, 생명 평화 기원 상생무 등을 선보인

준비할 예정이다. 이날 오후 8시 열리는 성주군청 앞 촛불문화제에는 이후 투쟁 방향과 결의를 다지고, 결의대회에 참가한 외지인들에게 참가 동기를 묻는 시간도 마련한다. 성주투쟁위는 "계속되는 촛불문화제를 통해서 꺼지지 않는 밀불로 자리 잡은 성주군민들의 굳센 의지와 힘을 나눌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규현 기자

대구경북민중언론, 독립언론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뉴스민 newsmin.co.kr



뉴스민은 대구경북지역을 노동, 인권, 소수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언론입니다. 관공서, 상업 광고 없이 후원회원들의 후원회비(약 80%), 작은 광고(20%)로 운영됩니다.

www.newsmin.co.kr

후원 문의 전화 070-8830-8187

이메일 newsmin@newsmin.co.kr